

다음세대 위원회 세미나팀 종합 보고서

○ 팀원 구성

팀장 : 임규현 장로

담당 교역자: 이현준 목사

팀원 : 이택수 정은숙, 김은주 한은실 강성목 지선화 손현례

○ 목표 설정

다음세대 사역을 위해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현실 파악 및 앞으로의 사역을 고민해 본다.

다음세대 부모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앞으로 말씀삶공동체 다음세대의 나아갈 방향을 함께 진행한다.

○ 활동

구분	날짜	모임의 목표 및 내용
1차	3월 26일(주일)	- 모임 장소 및 시간 : 401A / 오후 1시 - 회의 참석 : 임규현 장로, 최윤정 전도사, 정은숙, 강성목, 지선화, 김은주 교사. (6명)
2차	4월 9일(주일)	- 논의 사항 : 4월 23일(주일) 세미나 준비회의 (세미나 자료, 식사 및 간식, 세미나 순서 등)
3차	4월 16일(주일)	- 논의 사항 : 4월 23일(주일) 세미나 준비 최종확인
4차	4월 23일(주일)	- 세미나 피드백 모임: 당일 진행된 세미나 관련 피드백 후 5월 세미나 적용 점 논의
5차	4월 30일(주일)	- 논의 사항 : 5월 21일(주일) 세미나 준비회의 (세미나 자료, 식사 및 간식, 세미나 순서 등)
6차	5월 7일(주일)	- 준비 사항 점검 차 온라인 모임 진행
7차	5월 14일(주일)	- 논의 사항 : 5월 21일(주일) 세미나 준비 최종확인
8차	5월 21일(주일)	- 세미나 피드백 모임: 당일 진행된 세미나 관련 피드백에 대한 것 - 다음세대위원회 보고자료 제작 및 실질적 적용 점 논의
9차	6월 4일(주일)	- 담당 교역자 교체 - 교사간담회 준비회의 (진행방식, 간담회자료, 간식 등)
10차	6월 17일 (토)	3차 세미나 간식 구입과 포장
11차	6월 18일(주일)	3차 세미나 (담임목사님과 함께하는 간담회)
12차	8월 27일 (주일)	4차 세미나 준비 회의
13차	9월 3일(주일)	4차 세미나 (2차 담임목사님과 함께하는 간담회) 진행: 12시 50분- 2시 50분
14차	9월 17일 (주일)	4차 세미나 관련하여 팀원들과 평가 후, 세미나 대책위원회 마무리

○ 종합 보고 내용

1) 1차 세미나 보고

2) 2차 세미나 보고

3) 3차 세미나 (담임목사님과 함께하는 간담회) 보고

4) 4차 세미나 (2차 담임목사님과 함께하는 간담회) 보고

1차 세미나 보고

○ 강사 프로필

강사 소개 및 일정 확정			
NO.	강사	프로필	세미나 일정
1	김도일 교수 (장로회신학대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iola University, 인문학 학사 · Biola University, 기독교교육학 석사 (M.A.C.E.) ·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교역학 석사 (M.Div.) · Presbyterian School of Christian Education, 교육학 박사 (Ed.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날짜 : 4월 23일(주일) · 시간 : 오후 2:00 ~ 3:30
2	채병국 선교사 (wolk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olko 평택지부 학생 선교 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날짜 : 4월 23일(주일) · 시간 : 오후 3:30 ~ 5:00

○ 프로그램

시간 (오후)	프로그램 (4월 23일, 1001호)
1:30 - 1:50	다과 및 교제 (1001호)
1:50 - 2:00	찬양 시간
2:00 - 3:20	김도일 교수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학) 강의
3:20 - 3:30	쉬는 시간
3:30 - 5:00	채병국 선교사 (wolko 평택지부 학생 선교 담당) 강의
5:00 - 5:30	설문지 작성 및 기도
5:30 -	저녁 식사 (천미향)

○ 준비 사항

- 1) 출석 체크 담당: 지선화, 김은주 교사 - 안내 및 책자 배부 (강사 의전)
- 2) 저녁 식사 담당: 임규현 장로 - 천미향 70명 예약
- 3) 간식 (담당: 강성목 교사) 디저트 박스 (구성: 밀크티/휘낭시에/쿠키/미니버터바)
남주현 교사(업체명: 블레슈)에서 100개 주문
- 4) 찬양팀 담당: 한은실 교사 - 교사 찬양팀
- 5) 세미나 진행 시 자녀들 케어 담당: 이택수 교사 - 학부모도우미 섭외 (6층 꿈인)
- 6) 강의안 담당: 최윤정 전도사 - 책자 디자인 제작 (인쇄: 100권)
- 7) 교사 교육 피드백 담당: 정은숙 교사 - 설문지 준비

2023 다음세대위원회 세미나

다른세대에서 다음세대로

1차 4월 23일 (주일) 오후 2-5시 (1001호)

대상 10교구 교사 전체

김도일 교수 ▶ 뉴노멀 시대, 다음세대 신앙성장을 위한 플랫폼

장로회신학대학교

채병국 목사 ▶ MZ 세대?? 엄지 세대!?

한국 생명의말씀협회

2차 5월 21일 (주일) 오후 2-5시 (성산홀)

대상 당회원. 모든 직분자. 교구 및 기관 리더. 10교구 교사

지용근 대표 ▶ 한국교회의 현황

목회데이터연구소

전병철 교수 ▶ 쫓아가면 도망가는 세대 MZ 세대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박재범 목사 ▶ 한국교회 트렌드 2023과 선교적 교회

기아대책 부문장

주최 : 성락성결교회 다음세대위원회

 말씀살공동체 성락성결교회

○ 강의 책자

말씀살공동체 성락성결교회



2023 다음세대위원회 1차 세미나

다른세대에서 다음세대로

일시 2023.4.23(주일) PM 2:00-5:00 장소 성락성결교회 1001호

강사

김도일 교수 (장로회신학대학교)
채병국 목사 (한국생명의말씀협회)

강의명

뉴노멀 시대, 다음세대 신앙성장을 위한 플랫폼
MZ 세대?? 업지 세대??

김도일 교수 (장로회신학대학교)

약력

학력 Biola University, 인문학 학사(B.A.)
Biola University, 기독교교육학 석사(M.A.C.E.)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교역학 석사(M.Div.)
Presbyterian School of Christian Education, 교육학 박사(Ed.D.)

경력 기독교교육학 교수(Professor of Christian Education)
세부전공영역 (Special Areas of Interest): 기독교교육사상사(Historical Thoughts & Practices in CE)



채병국 목사/선교사 (한국생명의말씀협회)

약력

학력 칼빈신학교 신학/평생진흥원 청소년학 전공
호서대학교 연합신학전문대학원 기독교교육 전공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상담심리 전공

경력 한국생명의말씀협회 청소년 사역 코치
선교침례교회 한국어 담당 목사



3

뉴노멀시대, 다음세대 신앙성장을 위한 플랫폼

교회학교가 살아야 교회의 미래가 있다

용어설명

- 뉴노멀이란? 새로운 일상
- 다음세대란? 아동-청년까지
- 플랫폼이란? 아이디어 대결실

코로나 전후 다음세대 교회교육 현장 설문조사

■ 개요

구분	내용
조사 대상	전국 교회 목회자(담임목사, 교육담당 목회자) 및 교사 (표본 조사)
조사 방법	구글 설문지를 통한 온라인 조사 (이메일 및 문자를 통한 URL발송)
표본 규모	351명
자료 처리 및 분석	SPSS 28.0
조사 기간	2021.6.30. - 2021. 7.15.
조사 기관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연구원, 통합 총회 세대별 위원회 다음세대 분과

5

교회학교가 살아야 교회의 미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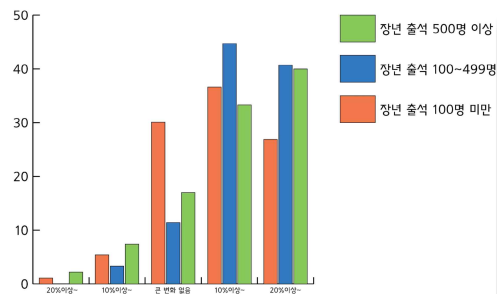
Point 1

다음세대와 교사가 함께 감소하고 있다

■ 장년 출석 100명 미만 교회에서는 교회학교 재적에 큰 변화 없음(30.1%)이 100명 이상 규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장년 출석이 500명 이상 교회의 경우 교회학교가 증가(0.6%)하거나 20% 이상 감소(40.0%)한 사례가 다른 규모에 비해 높게 나왔음을 알 수 있다.

■ 교회학교 봉사자의 수는 외면적으로는 20% 미만 감소한 수치가 33.9%, 20% 이상 감소한 수치가 14.8%로 나타나고 있으나 코로나 이후 봉사자 수를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 [그림 1] 코로나19 전후 현재 교회학교 재적인원 변화



6

○ 1차 교사 세미나 참석 명단

강성목 강용우 강은상 곽예원 권덕용 권민애 권예은 기은경 김경삼 김민재 김상복 김서영 김선경 김성중 김세일 김수연 김승희 김영규 김영찬 김은주 김은지 김종훈 김지원 김태연 김판수 김현용 김혜옥 노길호 류정현 류태영 박귀화 박명진 박명훈 박윤정 서현덕 설효정 성하곤 손현례 안성일 오유찬 원윤희 유성민 이병호 이석우 이수영 이수찬 이승용 이예슬 이은택 이정국 이진희 이현주 이혜진 임규현 임선아 장서현 장영주 장용배 장혜진 정나림 정은숙 조남일 조창덕 조한나 지선화 채윤경 최부선 최원호 최하연 한은실 홍승현 황예진 황인묵 허지훈 이지호 최윤정 마재열 이현준 김기선 김호진 (총 80명)

○ 1차 교사세미나 불참자 명단

구희연 김주영 김태현 김학예 남주현 노윤신 문복숙 박수빈 박종찬 배지현 서혜원 유세리 이순종 이택수 임묘희 장지혜 조상의 차성영 최영진 최진영 표우람 하재청 황순이 황현전 (총 24명)

○ [1차 세미나 교사 FEEDBACK]

질문 ①

오늘의 강의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그 내용이 성락성결교회 다음세대를 이끌어 가는데 어떻게 작용되어지길 원하시나요?

- 자율적인 크리스천의 (공교육 같은 주입식 교육이 아닌) 신앙적 상상력 중요하다고 생각.
-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가 회복되어야 어려움이 극복된다.
- 관계의 중요성, 교회의 수련회 프로그램 시간 확보
- 기독교 교육의 첫 번째는 부모 교육이다. 가정의 제사장인 부모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 MZ세대, 친구 전도의 중요성
- 우리가 MZ세대이지만 아직까지도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 다만 우리가 그들을 이해하며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틀에 맞추려하면 안 된다는 것을 느꼈고 반성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 다음세대들이 미디어와 인공지능 등의 다양한 플랫폼에 적용하고 사용하며 살아가기에 우리는 어떻게 다음세대를 이끌어야 하는지 되돌아 볼 것 같다. 우리 교회만의 온라인 플랫폼을 사용한 교회학교 자료가 많으면 좋을 것 같다.
- 다음세대 교육의 핵심은 부모 교육,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이라는 것.
- 기도와 묵상을 준비하고 주일예배에 서는 것 (영적으로 준비되는 교사 되도록)
- 아이들 & 부모님들과의 관계 형성에 에너지를 사용할 것
- 설문 결과를 통한(교육)설명이 유익
- 교사들이 먼저 삶을 실천하며,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 부모와 교사의 소통이 중요
- 교사는 한 부서에 오래 있으면 안 된다.
- 교회와 가까운 주변 학교에 정기적으로 전도
- 청소년 영혼 있는 생명체이다.
- 청소년 중 기독교 학생 수 5% 미만
-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기 위해 우리를 만들었다. 교사로서 아이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이끌어 주어야 한다.

- 문제의식의 제의와 확인이 아닌, 대책과 행동, 실천이 중요하다.
- 다음세대가 다음세대에게 복음 전파
- 수련회, 캠프는 되도록 활성화 시켜야 한다.
- 아이들을 뽐뽐하게 해서는 안 된다. 소망을 심어 주는 것이 오히려 MZ세대를 품을 수 있는 방법이다.
- 신앙 교육은 상상력에서 시작된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 교회학교는 도우미다.
- 영상 대체의 적극 활용의 필요성.
- 교사의 고령화는 세대 간의 보통의 원인, 세대교체 필요.

질문 ②

이번 강의를 통해 새롭게 도전받은 내용이나 다음세대 위원회에 제안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 교사 부서 로테이션을 전반적으로 요청
- 다음세대를 "성령의 사람들로"
- 부모와 가정을 대상으로 부모 교육 필요
- 적극적인 가정 : 부모 연계 사역
- 연령별 교회학교 지도 방법을 알면 좋겠다.
- 교구가 선교 지역을 나눠 담당하는 것처럼 교육부서도 교구별로 나눠서 감당하면 좋겠다.(물질, 기도, 인원 등)
- 부서별 맞춤 지원(인원, 재정 등)
- 전교회적으로 부모 교육, 장년세대의 마인드 전환을 위한 교육
- 교사이기 전에 내가 먼저 바른 기독교인이 되길
- 영혼에 관심과 시간과 사랑을 쏟기
- 교사 로테이션과 교사 안식년
- 장기적으로 교사 동원을 위해 싱긋 청년들도 함께 강의를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 한 부서에만 머물지 말고 여러 부서를 경험할 수 있는 통로 마련
- 전도와 기도
- 진심을 건드려주는 사랑과 관심을 갖도록 하는 프로그램 개발
- 어린이용 묵상 영상 등 다양한 영상을 제작하는 사역팀 개발
- 교육부 내에 젊은 교사로 세대교체가 될 수 있도록 체질 변화, 지원 체계의 장기적 구축

질문 ③

장기적으로 세미나를 통해서 듣고 싶은 강의는 무엇인가요?

- 문화 교육(예술 관련) : 아이들을 위한 음악이나, 모노드라마, 워십 등
- 아이들(각 연령대)와 친해지고, 가까워지는 방법
- 성경학교 준비나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계획에 대한 강의를 필요
- 실질적으로 교회학교 교사로서 바로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는 공과지도나 부모 케어법

- 이단교육
- 온라인 교재 제작을 위한 준비 및 지원
- 공동체성 회복을 위한 교육 및 학원 복음화 사례 강의
- 생명교육(성교육), 기독교 세계관을 기반으로 한 교사, 부모 대상 & 학생대상 미디어 교육
- 교사의 동기를 부여시키는 강의
-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게임이나 레크리에이션 강의
-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 및 실습(공과공부 진행법)
- 기독교 교육과 교회 교육, 가정교육
- 타교회 성공사례 강의

질문 ④

세미나의 전반적인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 세미나가 주일에 진행되어서 좋았고 전반적으로 만족합니다.
- 강사분들께서 빠르게 끝내주시고자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 전반적으로 좋았고, 간식이 너무 좋았습니다.
- 지금보다 더 노력하고 아이들에게 배려하는 교사가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됨.
- 시간이 조금 긴 느낌은 있었으나 너무 좋았고 세미나 시기도 너무 좋았다.
- 강의 책자에 대한 매우 만족하다는 평이 전반적.
- 교사만 참석하는 것이 아닌 참석 대상을 부모들, 청년들까지 확대했으면 좋겠다.
- 모두 만족스러웠다. 원론적이지 않고 현 세대를 이해하고 바라보는데 도움이 되었다.
- 세미나를 신학기 즈음 3-4월에 진행하면 좋겠다.
- 교사교육 때 처음으로 받아보는 관심이었었고, 준비를 많이 한 것이 느껴졌다.

질문 ⑤

만약 2023년 후반기에 교사M.T를 진행한다면 참석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참석하신다면 일정, 장소, 하고 싶은 프로그램 등을 알려주세요.

- 참석할 의향 있습니다 (당일) : 20명
- 참석할 의향 있습니다 (1박2일) : 3명
- 참석을 희망하지 않습니다 : 6명
- 시기에 따라 참석여부 보류 : 4명
- 무응답 : 47명

기타 의견

- 부서별 좋은 아이디어 공유의 자리가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 친해지는(연결) 프로그램, 부흥회, 기도모임
- 찬양집회
-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 계획을 함께 의논하고, 함께 진행해 나갈 수 있는 방향제안 및 교사가 먼저 실천해보는 프로그램
- 교사 한명 한명을 만나서 얘기하고 직접 현장에 방문해주세요.

○ 1차 세미나 현장사진



[TEAM FEEDBACK]

이현준 : 세미나를 준비로 또 참여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셨나요? 팀원들 간의 한 번 나눠 볼까요?

임규현 : 나와는 다른 세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MZ세대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기성세대의 생각을 MZ세대에게 주입하면 큰일 나겠구나 싶었습니다.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그들을 이해하고 소통해야겠구나 생각합니다. 그들은 소통이 불통이 된다면 그들끼리 소통방을 만들어 떠날 것이라 여겨집니다. 가령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처럼 말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들이 교회 공동체로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공간! 마치 놀이터와 같은 공간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정은숙 : 맞습니다. 소통이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저도 교육부서를 맡아 봉사를 하고는 있지만 걱정되는 것은 청년들과의 교회의 소통이 많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리더 되는 사람들이 더 적극적인 소통의 방법으로 청년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현준: 그렇군요. 소통이 시급하군요. 또 어떤 의견들이 있을까요?

이택수 : 저는 다음세대 친구들이 믿음을 잘 키워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의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의 성장을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이죠.

이현준 : 맞습니다. 주일에 한 번 예배만으로는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부터도 그 한 번의 예배를 드리며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강성목 : 한 번의 예배와 더불어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학교를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닌 지역사회에 연계하여 진행하면 어떨지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현준 : 지역사회와 연계라 어떻게요?

강성목 : 구청에게 문의하여 성경학교 주제에 맞게 어려운 친구들을 돕는 방법을 모색하여 실천하는 거죠.

이현준 : 그거 좋은 방법이 될 수 도 있겠네요.

김은주 : 저는 교육부의 교육뿐만이 아닌, 가정에서 부모들에 의한 신앙적 교육도 중요한 것 같아요. 세미나 주제를 부모가 아이들에게 신앙 교육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로 해서 한 번 세미나를 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선화 : 저도 그런 강의의 세미나는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강의로는 저도 다음세대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무엘 친구들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현준 : 당장 할 수 있는 것도 있죠?

지선화 : 맞습니다. 우리 교회 다음세대가 무슨 생각과 고민을 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도와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손현례 : 저도 더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현재는 안타까움이 들기도 하지만 소망을 발견합니다.

이현준 : 세미나 내용 뿐 아니라 준비하면서 느낀 점도 있으실까요?

손현례: 10층에서 진행하였는데, 성산홀과 같은 다니기 좀 더 편한 장소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간식은 좋았습니다.

지선화 : 모처럼 시도된 세미나는 흥미로웠습니다만, 다음번에는 듣고 싶은 강사를 섭외하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강성목 : 세미나 후에 식사도 제공해 주셔서 감사하였습니다.

2차 세미나 보고

○ 강사진

강사소개 및 일정확정			
N O.	강사	프로필	세미나 일정
3	지용근 대표 (목회데이터 연구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 한국궐립조사연구소 연구원 · CBMC(한국기독교실업인회) 사무총장 · 現 (주) 지앤컴리서치 대표 · 現 (주) 엠씨컨설팅 대표 · 現 (주)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날짜 : 5월 21일(주일) · 시간 : 오후 2:00 ~ 3:00
4	전병철 교수 (아신대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대일외국어고등학교 중국어과 졸업 · 미국 볼더 콜로라도대학교, 심리학/중국학 복수 전공 (University of Colorado, Boulder, B.A.) · 미국 풀러신학대학원 (Fuller Theological Seminary, M.Div.) · 미국 바이올라대학교 (Biola University, Ph.D.) · 미국 UCLA 방문연구원 · 한국 기독교교육학회 회원 (이사) · 미국 북미주개척교회 협력선교사 · 한국 평촌새중앙교회 협동목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날짜 : 5월 21일(주일) · 시간 : 3:00 ~ 4:00
5	박재범 목사 (기아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기아대책 총괄본부장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날짜 : 5월 21일(주일) · 시간 : 4:00 ~ 5:00

○ 진행 순서

시간 (오후)	프로그램 (5월 21일, 성산홀)
1:30 - 1:50	교제의 시간 (2층 베아투스)
1:50 - 2:00	찬양 시간 (찬양 인도 : 김기선 전도사)
2:00 - 2:10	지형은 담임목사 (성락성결교회) - 인사말
2:10 - 3:10	지용근 대표 (목회데이터연구소) - 주제 : 한국교회의 현황
3:10 - 4:10	전병철 교수 (아신대학교) - 주제 : 쫓아가면 도망가는 세대 MZ세대
4:10 - 5:10	박재범 목사 (기아대책) - 주제 : 한국교회 트렌드 2023과 선교적 교회
5:10 - 5:30	세미나 설문지 작성 & 다음세대위원회 리서치팀 조사참여
5:30 -	마무리기도 및 귀가

○ 준비사항

- 1) 출석 체크 : 지선화 교사
- 2) 책자 배부 : 김은주 교사
- 3) 강사 의전 : 임규현 장로
- 4) 간식 : 강성목 교사 (주스, 물)
- 5) 자녀 케어 : 한은실 교사 (학부모 도우미 섭외)
- 6) 책자 디자인 : 최윤정 전도사
- 7) 설문지 준비 : 정은숙 교사
- 8) 자리 안내 : 이택수 교사

○ 홍보 포스터



○ 세미나 책자



2023 다음세대위원회 2차 세미나

다른세대에서 다음세대로

일시 2023.5.21(주일) PM 2:00-5:00 장소 성락성결교회 성산홀

강사

지용근 대표 (목회데이터연구소)
전병철 교수 (아신대학교)
박재범 목사 (기아대책)

강의명

한국교회의 현황
쫓아가면 도망가는 세대 MZ세대
한국교회 트렌드 2023과 선교적 교회

코로나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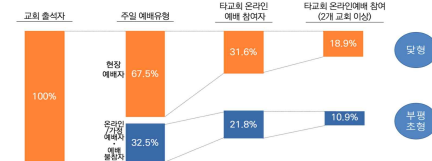
한국교회 변화와 다음세대 사역방향

강사: 지용근 대표

1.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의 주요 변화

1. 플로팅 크리스천의 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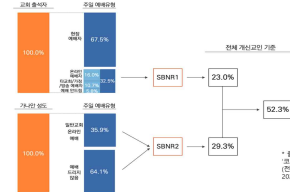
[그림] 출석교회 이외 떠도는 크리스천(교회출석자) - '붙 떠있는 크리스천'



* 출처: 영안통합/기아대책/목회데이터연구소.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 추경조사(개신교인 4차) (한국 만19세 이상 개신교인 1500명, 윤리연구소, 2022.04.15-25)

2. SBNR의 확산: 전체 개신교인 중 52%!

[그림] SBNR 구조도 (Spiritual But Not Religio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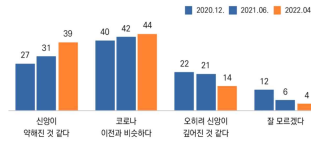
* 출처: 영안통합/기아대책/목회데이터연구소.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 추경조사(개신교인 4차) (한국 만19세 이상 개신교인, 1500명, 윤리연구소, 2022.04.15-25)

1.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의 주요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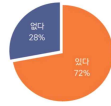
1.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의 주요 변화

3. 코로나19 이후 성도들의 신앙 약화현상 심각!

(그림) 코로나19 이후 신앙생활 질적 변화(개신교인 전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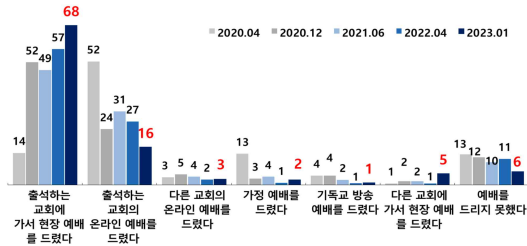
(그림) 영적 체험 경험의향(개신교인, %)



* 2020.12. 영성생활연구소. 코로나19 이후 신앙생활 질적 변화(개신교인 전체) 100명. 온라인조사, 2020.11.14.
 * 2021.06. 영성생활연구소. 코로나19 이후 신앙생활 질적 변화(개신교인 전체) 100명. 온라인조사, 2021.06.13.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 추경조사.
 (한국교회총연합회, 2021.06.13. 100명. 온라인조사, 2021.06.13.)
 * 2022.04. 영성생활연구소. 코로나19 이후 신앙생활 질적 변화(개신교인 전체) 100명. 온라인조사, 2022.04.19-25.

4. 온라인 예배자 작년 27% -> 16%로 줄어들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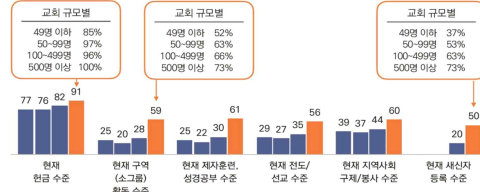
(그림) 지난 주일예배 형태



* 출처 :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한국인의 종교의식과 신앙생활' (한국 만19세 이상 개신교인 남녀 2000명, 온라인조사, 2023.01.09-02.12)

5. 헌금을 제외한 교회 내 주요사업 회복도, 코로나 이전 대비 50~60%대에 그쳐!

(그림) 코로나 이전 대비 사업 정도 (%)



* 출처(2023) :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한국인의 종교의식과 신앙생활' (한국 만19세 이상 개신교인 남녀 2000명, 온라인조사, 2023.01-02)

6. 3040세대의 위기

- 직장 스트레스(71%), 가사/육아로 몸과 마음 지친다(53%) -> SBNR 증가
- 현장예배 참석률, 30-40대가 가장 낮음 (온라인예배로 이동, 아예 예배 안드림) 신앙수준 약화, 전연령대 중 가장 심각
- 이들의 자녀를 교회학교 불출석
- 코로나 이후 3040 현장 예배 이탈자 : 43%
이들 중 10년 뒤... 교회를 떠나든지 기독교 신앙 버려겠다

7. 하이브리드 처치

옴니채널(Omni-channel), 즉 온오프라인 채널을 모두 보유, 이들 간의 유기적인 연결성을 구축하는 서비스 위에 복음을 올려놓음

- > 결국 한국교회는 이 하이브리드 방향으로 갈 것임(온오프라인 Mix)
- > 온라인 예배, 하나의 예배로 자리잡다 (전체 예배자의 25-30% 수준)
- > 온라인 신앙생활, 40% 이상 수용적!
- > 청년들의 온오프라인 인식 : 매끄러운 전환

○ 2차 참석 명단 (당회원, 모든 직분자, 교구, 및 기관, 리더, 10교구 교사)

- 임규현, 정은숙, 김은주, 지선화, 강성목, 김성중, 박영진, 이미희, 김선경, 장서현, 이예슬, 장명이, 조길자, 박혜정, 이정원, 이양순, 조양순, 김응열, 조한나, 문복숙, 이순종, 박귀화, 유제환, 조유남, 이시영, 조남일, 유명숙, 김혜린, 김현선, 김신자, 박연옥, 김홍권, 이은숙, 하재청, 김민재, 이기철, 박만수, 이진덕, 정은주, 막명훈, 이정애, 정정숙, 이명순, 신추환, 최영태, 조은경, 김정애, 정영주, 신희진, 최숙의, 박용일, 최종천, 채수철, 서흥연, 이진희, 황현전, 시인욱, 박미선, 천수정, 박혜숙, 심용석, 최미숙, 오순남, 고연순, 이병진, 엄일란, 이형권, 황숙자, 김현용, 최부선, 김경삼, 정지숙, 백순옥, 노길호, 최승주, 손정화, 박형기, 김전순, 김민희, 연호정, 김주호, 지승남, 조신영, 유조광, 이혜진, 안성일, 김미애, 구희섭, 이현주, 강금숙, 최복휴, 김혜옥, 강용우, 윤진철, 김순호, 김창인, 김선주, 이향옥, 김판수, 김욱진, 박춘미, 차인선, 박종두, 오유찬, 오의석, 김상복, 노재석, 이정한, 황인숙, 차현주, 노윤희, 홍인순, 박선자, 김영애, 신종현, 한현경, 서경선, 김수연, 최하연, 김영숙, 김종훈, 이은택, 장혜진, 손현례, 김태연, 구희연, 장용배, 김지원, 박윤정, 정현숙, 원윤희, 김영찬, 김명인, 김학예, 류태영, 권예은, 설효정, 정미란, 이규명, 공창운, 강은상, 신순이, 유성민, 김태현, 조창덕, 김예지, 김혜진, 김세인, 이성도, 이수영, 김성태, 김순이, 김복실, 김진규, 최원정, 이석우, 김기은, 한현경, 이병호, 정영건, 박규임, 김광미, 정선미, 예정희, 유명순, 고광태, 김서영, 황예진, 이윤슬, 장세환, 임은숙, 이선화, 신소영, 양정자, 김영규, 김대영, 이화자, 양은숙, 황지숙, 정나림, 권택용, 류정현, 조평형, 이향옥, 성하곤, (192명 참석)

[2차 세미나 설문보고]

질문 ①

오늘의 강의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그 내용이 성락성결교회 다음세대를 이끌어 가는데 어떻게 적용되어지길 원하시나요?

- 동지가 되어 줘야 하고, 관심을 가지고 인내심으로 다가가야 한다.
- mz세대에 필요한 교회의 역할, 심을 위한 동지로서의 교회
- 획일화 되지 않은 소그룹 모임을 만들도록
- 전병철 교수님, 소그룹은 말는 사람들이 어울릴 수 있도록
- 지용근 대표님의 가정교육이 신앙 교육의 기본이라는 강의
- 함께하는 공동체 소속감
- 포용하고 들어 줄 수 있는 어른 세대가 되어야겠다.
- 하나님의 나라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 두 번째 강의에서 세대 간 소통의 필요성이 중요함을 인지
- 성락성결교회의 트렌드 분석 필요 (우리 교회가 단계적 적용)
- 소그룹 활성화
- mz세대에게 심리 치료보다 같은 안전한 곳, 그곳이 교회가 되길
- 3040 부부세대 모임을 통한 연합
-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변화를 가져온다.
- 전문적인 심리 상담사
- 다음세대 소그룹 활성화 방안 모색
- 젊은이들이 교회에 대한 바람과 사고 방식
- 교회가 사회와 분리가 아닌 연합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필요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 비슷한 연령의 부모들을 위한 소그룹 형성
-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활동이 커졌으나, 현장으로 와서 예배하고 활동할 수 있는 방법 필요
- 직분자와 사역자가 다음세대와 1:1 인격적 관계 형성
- 부모 교육이 있으면 해요.
- 다음세대 아이들의 가치관 확립에 중점교육
- 교회가 한국사회에서 부정적 인식이 있으니 우리 교회부터라도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할 수 있기를 바란다.
- 신천지에 빠지는 이유가 성경공부를 원해서라는 대목에 뜨끔했습니다. 성경공부에 더 신경을 써야겠다고 다짐합니다.
- 극장 같은 교회가 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기로.

질문 ②

이번 강의를 통해 새롭게 도전받는 내용이나 다음세대 위원회에 제안하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

으신가요?

- 소그룹 활성화, 리더 세움.
- 서로 비슷한 사람들의 소그룹
- 주 1회 아이들과 소통하기
- 아이들과 함께 하는 비전트립
- 청년세대가 편히 기대고 위로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 마음이 상한 아이들에게 어떻게 눈높이를 맞추는지,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돕는다.
- 다양한 문화를 경험케 한다.
- 정책 결정을 위한 다양한 데이터의 수집이 필요
- 온라인 사역이 잘 되고 있는 교회 리서치, 3040부모 세대의 동소훈
- 혼자가 아닌 함께 하고 있음을 알게 해주고 싶다.
- 교회탐방의 주요 목적이 궁금하다. 연령별 학부모 간담회를 요청
- 장년층의 생각만이 아닌, 젊은 세대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기를
- 비전 트립을 통한 세대 통합, 교회와 현장 연결
- 교사들의 영성 훈련
- 세대통합을 위한 프로그램
- 다음세대들이 원하는 것을 파악하여 들리는 설교를 요청
- 교육부 내에 젊은 교사로 발굴과 소통
- 삶 속으로 찾아가는 리더십
- 자발적 소그룹 조직에 관한 내용
- 교회가 환경, 생태계를 위한 활동에 관심 요청
- 청년들이 장년들과 연합하고 어울릴 수 있는 접점이 있기를 (온가족 운동회, 캠프 등)
- 교회 뿐 아니라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프로그램이 있으면 해요. (봉사 점수도 활용)
- 재정에 대한 고민이 큰 듯 보여요. 다음세대 목적 헌금을 만들면 어떨까요?
- 중, 고등부와 유년부도 부모와 함께하는 예배
- 현실을 너무 모르고 과거지향적인 모습을 반성, 시대를 읽는 부모 교육의 필요성

질문 ③

장기적으로 세미나를 통해서 듣고 싶은 강의는 무엇인가요?

- 현장 교육에 도움이 되는 강의
- 청소년 부모이지만 청소년이 이해되지 않아요. 소통할 수 있는 어른을 위한 세미나
- 성경 맥잡기
-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교육 (심리 상담 등)
- 시대를 읽을 수 있는 인문학 강의
- 성공한 교회 학교의 성공 사례, 시스템
- 부모와 자녀를 위한 신앙 교육
- 정적인 세미나 보다 동적인 교제가 교사들에게 필요한 듯하다.
- 전교인 대상 세미나 (전체 성도들의 신앙 훈련을 위한 목적)

- 창조/진화, 무신론과 같은 논의에 대한 강의도 듣고 싶어요.
- 선교적 마인드 갖는 강의
- 다음세대 부모 케어, 소통 하는 강의
- 부모와 자녀들의 소통 성경적 방법에 대한 강의
- 구약총론 (구약이 어려워요.)
- 강의 공간에 조명이 더 밝았으면 해요.
- 노년 세대를 위한 신앙생활에 대한 교육
- 챗GPT 강의
- 이단교회를 구분하는 방법의 대한 강의

질문 ④

2차 세미나의 전반적인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 긴 시간 여러 강의를 아닌, 분기별로 지속적인 강의로
- 너무 길어요.
- 전반적으로 좋았고, 간식이 너무 좋았습니다.
- 지금보다 더 노력하고 아이들에게 배려하는 교사가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됨.
- 시간이 조금 긴 느낌은 있었으나 너무 좋았고 세미나 시기도 너무 좋았다.
- 횡수를 늘리더라도 하루의 3강의는 힘들어요.
- 시기는 좋은 2시간 정도로 하고 휴식 시간을 길게 주세요.
- 모두 만족스러웠다. 원론적이지 않고 현 세대를 이해하고 바라보는데 도움이 되었다.
- 세미나를 신학기 쯤 3-4월에 진행하면 좋겠다.
- 교사 교육 때 처음으로 받아 보는 관심이었고, 준비를 많이 한 것이 느껴졌다.
- 성령강림 주일 앞두고 좋은 강의입니다.

질문 ⑤

3차 교사 간담회 시간을 통해 담임목사님께 하고 싶은 질문을 자유롭게 적어 주세요.

- 담임 목사님이 바쁘시다 하시면, 교구 목사님이라도 성도들의 삶을 더욱 가까이서 봐주기를
- 현 다음세대를 잘 파악해 주세요.
- 교회 질서에 따라가지 않는 교사들이 있는 부서에 아이들을 보내고 싶지 않아요. 그의 대안.
- 당회에 청년들을 참여시켜 그들의 생각과 과제를 피력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 소그룹 목상 뿐 아니라 취미, 기호, 탠런트가 맞는 소그룹 모임도 가능할까요?
- 수요일예배 때 찬양 시간을 늘리거나, 금요 기도회 다시 열 가능성은요?
- 온라인 예배자 소그룹 모임 활성화 요청
- 3040 허리세대 구역 소그룹 모임 활성화 방안 모색
- 온가족예배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설교 해주세요.
- 샘나와 같은 공동체를 다시 만드실 계획이 있으실까요?
- 청년들 장학금 활용/ 온세계 선교 확장
- 간담회 때는 충분히 담임 목사님께서 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 다음세대에게 성경과 과학의 충돌의 대한 이해를 우리 교사들이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 60주년 기념사업 기금 중 다음세대 위원회에 어느 정도 투자가 될까요?

- 세대별 부모 교육 강화 요청
- 다윗이 중등부, 고등부가 분리/ 다윗 공동체에 관심을 주세요.
- 동네세메줄 말씀묵상 좋습니다만 방법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듯해요.
- 성인교육 양육, 제자반, 성경대학 활성화
- 노숙자, 미혼모, 자립 청년, 학대 아동, 탈북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교회되기를요.
- 고등부 인원이 적다고 알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있으면 어떨까요?
- 어린 친구들에 맞는 동네세메줄 교육
- 청소년 전문 사역자 청빙 요청

○ 2차 세미나 현장 사진



[TEAM FEEDBACK]

이현준 : 2차 세미나에 대한 의견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임규현 : 요즘 교회는 부모와 자녀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세대의 성공은 성공이라는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요. 바로 부모의 신앙생활에 있음을 아는 세미나였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교회도 부모님들의 봉사 또는 모임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 중요할 듯합니다. 그리고 그 모임 중에 마음 편히 할 수 있도록 다음세대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합니다.

이현준 : 자칫하면 교사들의 섬김이 보모의 역할이 될 수 있으니 분명한 프로그램으로 아이들도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만족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정은숙 : 맞아요. 분명한 배움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재능 있는 청년들과 연계도 하여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그들에게 그만큼의 사례도 하여 청년들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MZ 세대들의 등지로 교회가 역할을 감당하는 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요?

이현준 :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이택수 : 저는 무엇보다 연합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특별히 3040 부모 세대가 연합하면 교회의 튼튼한 코어의 기능을 할 수 있겠지요.

김은주 : 그렇게 3040 세대가 버텨 주고 있다면 우리 교사들을 그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예배하는 기본적인 것부터 지켜 낼 수 있으리라 봅니다.

한은실 : 맞아요.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보다도 기본에 충실하여 교사들이 우리 친구들을, 청년들을 보듬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역할을 감당하는 것 같아요.

이현준 : 그러네요. 기본에 충실 하자 꼭 필요합니다.

강성목 : 그렇게 충실한 기본이라면 교회의 역할인 전도 역시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코로나 이전처럼 관내 초등학교 전도도 하고, 전도를 많이 하는 친구들에게 시상도 크게 해주어 칭찬하면 좋겠습니다.

이현준 : 전도까지 최고입니다.

지선화 : 저는 세미나를 통해 우리 아이들을 이해하고 배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알게 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노력하려고 합니다.

손현례 : 저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지선화 : 세상의 가치보다 믿음의 가치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손현례 : 하나님 나라의 소망함을 갖도록 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망함이 있다면 그래도 잘 견딜 수 있는 세대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현준 : 진행 준비에 따른 의견들도 있을까요?

손현례 : 성산홀에서 진행되어 좋았습니다.

지선화 : 아무리 좋은 강의라 해도 3시간을 내리 듣는 것이 어려운 일 같습니다.

설문을 통해 듣고 싶은 주제의 강의를 분기별 혹은 전, 후반기 이렇게 고정적으로 세미나가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3차 세미나(첫 번째 간담회) 보고

○ 목적

지난, 6월 18일 진행된 1차 간담회 나눈 내용을 녹음하여 문서화 하여 내용의 이해를 돕고, 문서 말미에 팀원 간의 후기를 간단히 담아 본다.

○ 일시 및 기본 사항

- 일시: 23년 6월 18일(주일) 오후 12시 50분- 2시 50분
- 주제: 진심과 배려의 소통! (첫 번째 시간)
- 장소: 1001호

○ 진행

시간 (오후)	프로그램 (4월 23일, 1001호)
12:50 - 1:00	찬양 시간
1:00 - 1:45	담임목사님과 함께하는 간담회
1:45 - 2:30	교육목사 Q&A
2:30 -	마무리기도

○ 준비사항

연합 찬양팀: 각 다음세대에서 한 분씩 섭외

(인도: 이현준 싱어: 지선화, 김혜옥, 이승용, 김현용, 율동: 김은지, 세션: 류태영, 류정현)

다과, 음료: 세미나팀에 강성목 팀원

출석체크: 김은주, 정은숙 팀원

장소 음향 체크: 손현례, 지선화 팀원

녹음 및 서기: 이현준 목회자

사진 촬영: 임규현 팀원

○ 간담회 질의응답

담임 목사님

다음 세대 위원회 활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목회자들 장로님들 또 선생님 같이 적극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은 우리 교회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참 행복하게 걸어갈 그런 토대를 잘 놔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 입장에서 우리 교사 분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생각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먼저 듣고 메모하고 그리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용 선생님

네 중등 다윗 교사하고 있는 김현용 안수 집사입니다. 먼저는 다음세대에 구체적인 신앙적 방향성을 무엇을 가지고 계실까요?

더불어 기존의 부모를 따라 오는 친구들 뿐 아니라 친구들이 스스로 올 수 있는 신앙의 방향성에 따른 특징 있는 프로그램을 갖추어야 할 필요성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하곤 선생님

고등다윗 섬기고 있는 성하곤이라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교회에서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건 비전과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재 가지고 있는 제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그중에 특별한 것이 교육위원회 때마다 제가 건의 드리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현재 교육 목사님 제도는 보직이 제가 알기로 순환 보직으로 알고 있고 또한 이 교육을 총괄하시는 역할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관리를 하시는 서기 역할에 좀 더 가까운 교육과 관계된 것 정책을 장기적으로 하려면 아무래도 제도적인 면이 먼저 이게 확립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과 그것을 이어나갈 수 있는 어떤 제도의 정비 예산 확보 그리고 정책적 비전이 만들어지는 것들이 좀 정기적으로 논의되고 지속적으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두 분 선생님의 의견 감사합니다.

기본적인 정책 여기에 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말하자면, 멀리 좀 타지로 밖으로 이사 가니까 아이들이 부모가 나왔다가, 부모가 가는 시간에 애들도 같이 움직여야 되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게 그런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모와 아이들을 위한 정책과 스스로 오게 하려는 노력도 있어야 합니다.

요번에 다음 세대 위원회는 그래서 필요하다고 제가 굉장히 강조했고 또 다행히 교육위원장님 또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과 시작한 것입니다. 다음 세대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 한국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느냐 그런 연구는 누가 얘기해도 뽀족한 대답이 없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거 아닌 다음에는 굉장히 연구 결과가 아주 가득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김도일 교수 모셔서 했잖아요. 그런 전문가가 한 몇십 명은 됩니다. 다음세대 위원회의 활동으로 우리 교회만의 방향성을 확고히 하고 맞는 프로그램을 계획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기관 목회자는 순환 보직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작년 교구가 순환 보직입니다.

연효정 집사님

안녕하세요. 연효정 집사인데요.

제가 지금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그때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지금 초등학생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6층에 꿈이룸 놀이터도 있고 뭐 풋살장도 있고 한데 중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 같아요. 공간이 있으면 합니다.

담당 목회자들이 주일에 너무 바쁘신 듯합니다. 바라기는 시간을 내어 아이들과 말씀묵상을 하거나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학습에 관련된 프로그램도 좋고요. 특히 멘토와 멘티처럼 아이들과 목회자들이 소통하며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었으면 합니다.

담임 목사님

중, 고등학생들의 문화 공간 뭐 말씀묵상하고 멘토링하고 지역사회에서 중, 고등학생들이 영어 수학 가르치고 이런 것도 계획을 세워서 하면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올해까지 그런 거 안 하다가 내년엔 열 가지를 한꺼번에 한다. 하려면 여러분들이 도와야 해요. 교사들이나 학부모들은 전혀 참여 안 하고 그게 진행이 안 돼요. 그러면 전부 다 목회자들 직원 몫이 되잖아요.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간은 6층의 꿈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물론 연령에 따라 더 확대해야겠죠.

주일에 사역자들이 너무 바쁘다고 그러는데 주일이 되면 모든 목회자들이 자기가 맡은 부서가 최우선입니다. 그거는 저도 제가 이런저런 수행하고 하는 지현민 목사님 빼놓고는 다른 목사들 얘기할 때는 언제나 그분들이 맡은 일 외에 시간이 되는지 물어봐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 교육 구조에서 모든 교육기관 목회자들로 말한다면, 교육기관 목회자들은 주일이면 그게 완전히 최우선 순위입니다.

홍승현 선생님

네 어린 사무엘에서 섬기고 있으며 초등학교 5학년 자녀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 홍승현 집사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좀 실질적인 그런 아이들에게 성교육이든 또 미디어에 대한 경각심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이 좀 분기별로 전문 강사를 모셔 놓고 아이들에게 좀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드는 것은 한 교구가 한 교육 부서를 좀 매칭을 해서 성도님들도 다음 세대들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계를 만들면 합니다. 그게 1년 내내 지속되면 더 좋겠지만, 또 각 교구마다 또 하시는 일들이 있으니 이런 성경학교라든지. 이런 특별 행사할 때만이라도 좀 이렇게 같이 함께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담임 목사님

집사님 말씀하신 권사님 말씀하신 교육부서 교구하고 매칭해서 하는 거 진짜 굿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는 다 해 가지고 바로 우리 다 꼼꼼하게 메모해 놓아서 내년도 사역에서 바로 그렇게 시행이 되도록 하면 됩니다. 다음에 성교육 미디어 관련 교육 이런 거 분위기별로 좀 한 번씩 했으면 좋겠다는 것도 당연히 좋고 그래서 교사 또 학부모 또 아이들의 직접 대상으로도 관련 교육을 하면 좋겠습니다.

김민재 선생님

이제 소년요셉 공동체를 섬기는 김민재 집사라고 합니다. 교사 수급 방안에 대한 요청입니다. 제 아이디어는 안수집사 이렇게 받으시는 분들 봉사를 할 때 최소한 1년 정도는 교육기관에 좀 봉사를 하심이 어떤가 그게 첫 번째 아이디어고 두 번째는 각 부서의 부모님들이 계시는데요. 인턴제로 해서 3개월 또는 6개월 자유롭게 자기 아이들과 같이 교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굉장히 탁월한 아이디어 진짜 좋습니다. 인턴 교사 참 좋고요. 또한 안수집사님 되시기 전에 최소한 이 년은 꼭 교육기관에서 교사로 봉사하는 것은 너무 좋습니다. 주변의 여론 때문에 1년으로 깎으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는 사실은 그냥 그렇게 우리 교회 사역에 적용하면 다 됩니다.

이지호 목사님

담임 목사님은 3부 예배 설교로 여기까지 마무리 하고, 이어서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혹시 질문을 못 하셨거나 저한테 질문하실 것들이 있는 분들은 제가 계속 이어서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현례 선생님

네 소년요셉 섬기고 있는 손현례입니다. 그 아까 중,고등부 놀 수 있는 공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옆에 향림공원의 성동구청에서 풋살장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중, 고등부 아이들의 활동 공간으로 좋을 것 같고요. 보태어 문화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도 좀 마련해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령 악기도 치고 자기들끼리 노래도 하고, 소규모로 스스로 연습하여 공연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으면 합니다.

이지호 목사님

공간 활용에 대한 부분은 교회에 공간 재배치 위원회가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전에 설문으로 받은 것 중에 대답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서에 맞는 세미나 개최 요청하셨습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얘기하셨고 또 부서별로도 가능하고 또 교육위원회 차원에서도 1년에 2회 이상은 세미나를 진행하려고 작년부터 계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않으셔야 하는 한 가지는 강사 섭외에 관한 것입니다. 추천에 주신 강사가 섭외되지 않는 경우가 그 강사 분의 일정이 맞지 않거나 조율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책걸상 10년 이상 노후 된 거 새것으로 교체를 요청한다고 저희 교사 질문해 주셨습니다.

교사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공간은 부서 공간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예배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부에서 관리 차원에서도 그런 것들이 교체가 가능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정확하게 조사 하셔서 파악해 주시고 알려주시면 저희가 제출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각 부서별로 물품 조사를 실시해 달라고 말씀드렸고 그때 재고 조사가 정확하게 돼서 왔으면 그때 교체했으면 좋았을 내용인데 잘 시행이 안 된 것 같아요. 각 부서에서 노후 된 책걸상을 파악하셔서 교체를 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사 순환제에 대해서 질문해 오신 분이 계십니다.

여론을 좀 더 형성하고 왜 필요한지 그리고 시행했을 때 완충 작용을 할 수 있는 다른 보완 제도가 있는지를 조금 더 저희 끼리 논의가 된 상태에서 진행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련회와 같은 큰 행사에 부족한 재정에 관하여서 특별 홍보 봉투를 활용하면 어떨까요?

교육위원회를 통하여서 당회에 올라갔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당회에서 지금 성도님들이 60주년 기념 헌금을 미리 하고 계시고, 또 글로벌 사랑 나눔이라든지. 특별 헌금으로 내시는 항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성도님들한테 가중해서 재정적 부담을 드릴 수 있겠다고 하여서 장로님들이 요거에 대하여서는 다시 생각하고 고려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주셨고 재정 부족과 관련해서 이번 수련회에서는 장로님들이 개인적으로 후원금을 모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특별헌금이나 교회에서 계속해서 나가는 이런 헌금의 종류들이 좀 줄고 성도님들이 충분히 마음을 모아서 하실 수 있을 때에는 충분히 특별 헌금 봉투를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명진 선생님

중등 다윗에서 봉사하고 있는 박명진 교사고요. 한 가지는 이지호 목사님께서 답변하실 수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우선 저희가 말씀 목상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를 잘 기억하고 있고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보시니부터 해서 지금 동네세메줄까지 집행하시는 당회나 아니면 목회자들께서 잘 시행하고 잘 계획하고 있는 대로 시행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잘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도 궁금하고요. 잘되고 있다고 하면, 어떤 면에서 그렇고 잘 안되고 있다면 어떤 면에서 잘 안 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계신지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개선을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그게 먼저 처리가 되어야 교육부서도 그거에 대해서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목상 관련하여 우리 다윗 친구들이 목상에 도움을 주는 교보제를 요청합니다.

다음으로 부서 입장에서 10층에서 예배하는데 엘리베이터 사용에 관한 것입니다. 반대편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다윗을 위하여 사용할 수는 없는지요?

이지호 목사님

그 동네세메줄 성경이 지금 교구별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닌지는 교구 목사님들이 직접 다 통화해서 전화 심방에서 현재 하고 있는지 뭐 얼마나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다면 왜 못하고 있는지를 다 담임 목사님께 보고를 했어요. 한 번 다 전체적으로 다 진행해서 교육부서도 마찬가지로 전체 아이들 대상으로 그래서 파악은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전체적으로 동네세메줄에 올인해서 다 잘되고 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반반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적극적인 동참의 대안이 뭐냐고 말씀하시면 제가 담임 목사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하고 있는 동소훈 훈련 과 동직훈 훈련이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설교 때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다 갈려면 리더들이 세워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리더들을 세우는 일들을 지금 계속 계속해서 1차 2차 수료식 과정에서 거쳐서 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3차 4차 5차 6차 이렇게 해서 리더 그룹이 제대로 잘 튼튼히 세워지면 리더 그룹을 통해서 독려해서 계속 성도들에게까지 동네세메줄성경 말씀목상이 뻗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게 지금 시작 단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다음 세대 교육부에서도 동소훈을 동네세메줄 팀에서 시범적으로 그대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동네세메줄을 가지고 소그룹 리더를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또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리더로 세워서 아이들이 아이들을 소그룹으로 인도해서 동네세메줄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프로그래밍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다음 세대 위원회 동네세메줄 팀에서 진행하고 오늘 광고 나갔습니다. 20명 선착순으로 받아서 진행하려고 하니까 이것들이 지금 시작 단계에서는 몇 명 안 되고 좀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인도자들이 세워지고 리더들이 세워져서 리더들이 목상하고 목상한 걸 가지고 아이들과 같이 나누는 것들이 시작되면 잘 되지 않을까요? 네 그것은 좀 잘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0층 공간에서 반별로 말씀 목상하는 공간들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교회 전체 공간과 관련하여서는 공간 재배치 위원회가 운영 중입니다. 전달하여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용 선생님

유년요셉에서 교사로 섬기고 있는 이승용이라고 합니다. 사실 홈커밍데이 제가 제안했던 안입니다. 교사 엠티와는 다른 부분이고 선생님들 했던 분들이 다시 오시거나 졸업한 친구들이 다시 만나자는 의미에서 제안했었습니다. 청년들의 예를 들면, 제가 10년 전에 가르쳤던 애들이 싱크가 돼서 다시 교회 학교 선생님들을 보러 온다는 의미도 있을뿐더러, 또 친구들한테 교사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이런 복안까지 기대를 한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교사였던 분들이 다시 오서 가지고. 한번 또 얼굴도 보고는 취지로 제가 말씀드렸던 의미였습니다. 더불어 교사 수급 부분을 한 번 더 언급 드리면 교육목사님이 싱크청년을 맡기도 하셨으니 많이 추천해 주세요.

이지호 목사님

홈커밍 데이에 관한 부분의 제안은 잘 이해했습니다. 내년 사역에 논의해서 계획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싱크청년에게 교사 제안에 관한 부분은 잘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태영 선생님

저 소년요셉 섬기고 있는 류태영인데요. 간담회도 하고, 어떤 위원회도 꾸려서 진행합니다.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전담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누가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전문가를 모셔서 진단도 받고 도움의 방향도 들을 수 있으면 합니다.

이지호 목사님

사실 세미나를 통해서 전문 분야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적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미나 팀에서 2번의 세미나를 진행한 것입니다. 교육 디렉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교회가 다같이 논의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박명훈 선생님

고등다윗에 박명훈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 저랑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얘기한 건데 9층, 10층에 관해서 이용에 대한 문제인데 저는 문제가 아니라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엘리베이터가 하나가 남는 게 있습니다. 저쪽 끝에 있는 엘리베이터거든요. 그쪽 엘리베이터는 주말날 사용을 잘 안 하세요. 그래서 그쪽 엘리베이터를 유도할 수 있는 광고로라도 한 번에 내주시면 아마 엘리베이터 문제는 어느 정도 좀 해결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담임목사님께서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와서 예배를 같이 드리시면서 설교를 드려 주신 다거나 아니면 뭐 기도를 한번 해 주셔서 아이들을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지호 목사님

동측 엘리베이터 사용에 관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임목사님의 방문에 대해서는 성경학교 때라든지, 수련회 때 부서별로 요청하시면 담임목사님의 스케줄에 맞춰서 진행 가능합니다.

김종원 선생님

저는 중등다윗의 김종원이라고 하는데요. 부모 초청 간담회 하실 때 이지호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다른 교회에서 전체 세대가 잘 어울려져서 진행되는 부분과 학년이 통합되어서 잘되었다는 레퍼런스를 분명히 그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친구 그들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위아래 이렇게 아이들이 서로 연결될 수 있는 연결고리들에 대해 공부하신 입장에서 좀 진행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보면서 말씀을 한번 드려 봅니다.

이지호 목사님

그것에 관련하여 진행하는 것이 지금 다음세대 동소훈에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신청한 아이들이 연령별로 선착순으로 모아지면 또래 그룹으로 형성해서 소그룹을 운영할 생각입니다. 잘 진행되어져서 전체 교육부로 확장이 되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좀 논의가 될 예정입니다. 학년에 상관없이 소그룹으로 이뤄지고 소그룹에서 같이 말씀묵상 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한번 잘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도와주셔

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지호 목사님

세미나 팀에서 8월에 한 번 더 간담회를 진행하는 걸로 계획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못 나온 얘기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더 깊이 있는 대화나 좋은 의견들이 있으시면 담임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든지 저희 교육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장로님께 전달해 주셔도 되고 담임 목사님께 쪽지를 올리셔도 됩니다. 언제든지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고요. 저희가 8월까지 다음세대위원회가 활동하고 있으니까. 그 안에는 계속해서 좋은 의견들을 내주셔서 저희가 다음 세대에 교육적인 방향이나 정책을 수립해서 내년도에 시행할 수 있도록 진행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시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TEAM FEEDBACK]

임규현 : 모처럼 학부모, 선생님들과 함께 담임 목사님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정은숙 : 맞습니다. 이런 기회가 잘 없는 소통할 수 있는 기회들이 된 것 같습니다.

김은주 : 부모님들이 관심이 그래도 많구나 싶었습니다.

한은실 : 그럼요. 저도 요셉부서를 섬기지만 작은 것 하나도 관심을 가져 주십니다.

이현준 : 저도 다음세대 사역하면서 처음 경험해 봅니다. 긍정적인 모습 같아요.

이택수 : 다음세대 동소훈은 기대가 됩니다. 아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현준 : 간담회를 준비 하시면서는 어떠셨어요?

강성목 : 간식을 준비하는 것이 힘들지는 않았습니. 이런 간담회를 통해 다음세대의 부모와 선생님 그리고 교회가 잘 소통하여 개선되어졌으면 합니다.

지선화 : 간담회에 나온 안들이 실효가 되어 아이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주었으면 해요. 그리고 찬양 시간에 각 부서 선생님들이 함께 하는 것이 인상적이고 좋습니다.

손현례 : 태아영아부 선생님의 율동이 참 귀엽고 예뻐했습니다. 장소는 세미나와 마찬가지로 10층은 오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행사에는 좀 더 아래층의 공간을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임규현 : 좀 더 홍보하여 많은 부모님들이 함께 했으면 합니다.

한은실 : 세미나팀이 아니어도 전도사님들이 사진 찍는 것으로도 돕고 좋았습니다.

4차 세미나(두 번째 간담회) 보고

○ 목적

6월 18일에 이어 9월 3일 두 번째로 진행된 간담회로 당시 내용을 녹음하여 문서화로, 내용의 이해를 돕고, 문서 말미에 팀원 간의 후기를 간단히 담아 본다.

○ 일시 및 기본 사항

- 일시: 23년 9월 3일(주일) 오후 12시 50분- 2시 50분
- 주제: 진심과 배려의 소통! (두 번째 시간)
- 장소: 1001호

○ 프로그램

시간 (오후)	프로그램
12:50 - 1:00	찬양 시간
1:00 - 2:40	담임목사님과 함께하는 간담회
2:40 - 2:50	마무리와 기도

* 진행은 1차 간담회와 같이 담임목사님께서 하심.

○ 준비 사항

찬양팀: 각 다음세대에서 한 분씩 섭외 참여함.

(인도: 이현준 싱어: 지선화, 김혜옥, 이승용, 세션: 류태영, 류정현)

사탕과 음료 준비: 강성목 팀원

출석 체크: 김은주, 정은숙 팀원

장소 음향 체크: 손현례, 지선화 팀원

녹음 및 서기: 이현준 목회자

사진 촬영: 임규현 팀원

○ 간담회 질의응답

담임 목사님

그동안 진행되어 온 다음세대 위원회 활동에 내용과 함께 지난 번 나누지 못한 우리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사실 저는 6개월 동안 다음 세대위원회에 활동하는 걸 보고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도 있게 또 교회학교 관련해서 부모들까지 이렇게 참여하시는 것을 보고 저로서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다음세대위원회 활동을 6개월 동안 하면서 이 과정 자체가 우리 교회에서 다음세대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깨우는 계기가 된 듯합니다. 이제 산출된 결과를 통해 적용할 것입니다. 또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과정 자체가 훈련의 과정이고 또 관심과 인식이 다시 살아나고 모이고 하는 기회로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세대 위원회 모든 팀에게 저로서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2004년 11월 달에 제가 취임식을 했습니다. 이 교회 담임목사로 취임사 했던 말을 기억합니다. 평신도 리더들 전체 성도들과 같이 동역하는 목회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두세 가지 핵심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녹록치 않더라고요.

우리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도 아시겠지만 여러 조직과 역할이 있어서 조율과 협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담임 목사는 전체를 조율하면서 끌고 가야 되는 입장이니깐요. 조율과 협력을 하기 위해 의견을 듣고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방과 후 학교가 일회적으로 진행 되었는데 어땠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지호 목사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100명 정도 아이가 지원을 했습니다. 저희가 주일 참석 예배 인원이 250에서 270명 정도 되는데 절반 가까이 참석한 것입니다. 피드백 중에서는 방과 후 학교가 한 주간의 단기 사역이 아니라 장기 사역으로 알고 신청을 미루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휴가 때랑 겹쳐서 신청을 못하신 분들이 계시기도 하었다고 합니다. 더 많은 분이 이에 대해서 참여를 원하고 필요한 사역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명숙 집사님

8살 7살 5살 아이가 있는데요. 학년별로 나눠주신 거는 좋았습니다. 만약에 시행을 한다면, 과목 신청시 세 개는 너무 많았던 것 같고, 한 분야로 조금 집중할 수 있는 수업을 개설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살 아이 수업 같은 경우에는 보조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셔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날은 안 계셔서 결국에는 제가 다시 도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로서의 마음은 이걸 하려고 했던 목적이 뭐였지? 저는 이 시간에 소모임을 부모가 아이와 떨어져서 아이를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런 목적이 있지 않았을까? 약간 그런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진행을 하면서 이게 정확한 목적이 뭐였을까? 약간 조금 좀 의심 의구심이 약간 조금 드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은 재미는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매 주는 어려울 듯 하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꾸준히 하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우리 탐방 팀에서 예수 향남교회 방문한 분들이 계시죠? 방문 후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나눠주세요.

김기선 전도사님

예수향남교회에 대안학교에 대해서 상당히 활발하게 또 오랫동안 해오고 있었습니다. 전 학년이 있고, 학생들이 집이 먼 친구들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은 거기에서 또 잠도 잘 수 있도록 기숙 시설도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교육도 하다 보니 예배공간이나 또 학습 공간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지만 주중에는 학교로 쓰다가도 주일은 의자 치우고 예배합니다. 저학년 같은 경우는 별도의 건물로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지역이 도시와 떨어져 있어서 차를 타고들 많이 오는데 공교육에서도 배우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을 배우는 것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간 시행착오를 많이 겪기도 하면서 이제는 부모님들도 딱 교회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로 돕고 한 마음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전문적이 교사 수급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교사들의 사례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우선으로 지켜내는 것에 집중하며 헤쳐 나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담임 목사님

교회의 건물 정도는 어떤가요? 우리 교회가 지하 4층 지상 10층이듯 말이죠.

김기선 전도사님

예수 향남교회는 지상 7-8층 정도입니다. 1층을 주로 교실로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별도의 건물이 있어서 작은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박윤정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태아영아부 박윤정 교사입니다. 제가 교회 탐방 팀으로 소속이 되어서 저도 이번에 예수향남교회에 다녀왔습니다. 대안학교 부분에 대하여 의견을 드리면 본당과 같은 장소로 예배를 드리는 대강당이 있습니다. 주로 1층에 칸막이 식으로 되어 있는 교실에서 수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갔을 때에도 중, 고등학교 친구들이 수업을 진행하는 중이었습니다. 음악 관련된 수업을 하는 곳도 있었고, 또 저희가 끝날 무렵에도 요리를 해서 대접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교실 같은 경우는 방문이 하나씩 있고 칸막이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게 임시 칸막이로 막아서 반을 좀 나눠서 쓰다가 예배 때 이제 또 친구들이 주일날 오게 되면 그 칸막이를 좀 터 가지고 각각의 교실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의 좀 번잡함은 느껴졌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들었던 말씀 중에 기억나는 것은 교사 채용 부분도 되게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육적인 비전과 실제 선생님을 또 채용하는 데 있어서 선생님들의 교육적인 가치관이 다른 어려움도 있고, 선생님의 자질 부분에서 망설여지는 것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례 부분이 있습니다. 또 그곳이 기숙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외진 곳에 있었고 주변은 공장 지대였습니다. 교통편도 없었고요. 그래서 만약 우리 교회가 대안학교를 연다면,

단순히 교회 근처인 성동구나 성수동 뿐 아니라 실제로 다른 지역에서도 예배하러 오는 아이들처럼 여러 지역에서 다닐 부분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

저도 방과 후 학교와 예수향남교회 두 가지가 굉장히 궁금했는데 잘 들었습니다.

어떤 제안도 좋고, 이야기도 괜찮습니다.

먼저 두 분 이지호 목사님과 조남일 장로님의 말씀 하시는 동안 생각하신 것들 말씀해 주세요.

이지호 목사님께 여쭙습니다. 실무적으로 쪽 6개월 동안 진행해 오셨는데 교육 목사님 이지호 목사님이 보기에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사역에서 어떤 좀 가능성들이 있을까요?

또 조남일 장로님 보시기에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사역 앞으로 길게는 십여 년 계획을 방향을 잡고 계획을 세우는 건데 생각하기에 이 다음 세대 위원회 사용해서 이런 것 진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 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지호 목사님

저는 우리 교회 다음세대가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이 타 교회보다 뒤처지거나 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되레 더 잘하는 것들도 있는데, 단지 그 효과에 대해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는 인프라와 재정 어떤 면에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서 새롭게 도전하고 시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탐방했던 교회들의 특징이 세대별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세대별로 그에 맞게 세분화 하되, 또한 다음세대로 연계하여 하나의 공동체로 이어지는 것이죠.

조남일 장로님

과거 독섬 지역은 공장 지대였습니다. 당시 청년이 300여명이 예배했는데 일하는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런 때가 있었냐는 듯 새로운 성수동이 되었습니다. 교통도 발달했고요. 이런 시점에 다음세대를 위한 중장기 팀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담임목사님께서 작년에 한 번 하셨지요. 그리고 올해 본격적으로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시작되었습니다. 다음세대를 위해서는 우선 투자와 예산에 대한 부분이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층의 공간도 다음세대를 위한 지원 공간으로 만든 것이지요. 잘 활용되고 있는 것 같아 좋습니다. 행정적으로는 임원들의 2년 순환 보직보다는 한 4년 정도로 하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담임 목사님

우리 교회 사역 구조는 당회원 장로님들이 모든 위원회 또는 부장직을 맡도록 그렇게 지금 돼 있죠. 우리 교회 위원회는 기본적인 이 구조가 8개 위원회입니다. 그 외에 뭐 예결산위원회 감사위원회 또 어떤 특별한 시기에 필요한 위원회는 만들어서 일이 끝나면 사역을 종료하고 특별위원회들이 좀 있죠. 위원장과 부장을 당회원 장로님들이 맡으면서 이끌어 가는 구조인데 두 달에 한 번씩 정리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난 두 달의 사역 보고하고, 또 당회에서 결의해야만 될 사항들 또는 우리 교단 헌법에도 당회의 권한 책임 이런 것들을 결의하고 논의하고 집행합니다. 기본 구조를 우선 설명 드렸습니다.

교육 목사님하고 교육위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어떤 얘기도 좋습니다.

서현덕 장로님

소년요셉 부장을 맡고 있는 서현덕 장로입니다. 리서치 팀에서 분야별로 설문조사를 많이 했잖아요. 그것을 한 번 보고서 이 토론을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지호 목사님

중간 보고서에 저희가 결과를 한 것이 있습니다. 양이 많아서 후에 정리한 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경화 집사님

네 안녕하세요. 아이 두 명을 키우고 있는 엄마이구요. 서경화라고 합니다.

저는 실제로 아이들 대안학교에 보내고 있습니다.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고 중심이 되어야 하는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토대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6개월의 위원회 사역으로 종료가 된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다음세대 위원회가 갖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 코로나 이전 8주의 부모 교육을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대안학교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확실하게 대안학교에 대한 목적이 있으신 지도 모르겠습니다.
대안학교에 대한 생각과 준비는 어느 정도 하고 계실까요?
- 대안학교가 진행된다면 고등 과정 이후, 대학 진학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교사 부분, 학업과 신앙의 밸런스를 맞추는 커리큘럼을 어떻게 하실지 등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되어 있는지요?

홍승현 선생님

예 네 어린사무엘을 섬기는 홍승현 집사입니다.

아까 박윤정 집사님의 이야기의 연관된 질문입니다. 우리 교회 건물과 시설, 재정이 다 준비되었어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은 대안학교 교사 채용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또 주로 대상이 될 부모들을 어느 정도 연령의 부모들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담임 목사님

서경화, 홍승현 두 분 집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드리면요. 다음세대위원회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 짧게는 5년 10년 정도의 교육기관 사역 방향 또 어느 정도 정할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사역의 내용도 정한다. 이게 이제 1차적인 목표인데요. 그런데 특별히 대안학교가 목표냐라는 질문에 담임목사인 저로서는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 전체적으로 대안학교를 그림 시작한다. 그러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교회 사역은 오늘날의 현실을 보면 크게 두 덩어리로 볼 수가 있어요.

주일에 또는 주중에도 뭐 여름 성경학교나 특별한 어떤 프로그램 관한 것 일부 하고 있지만 주일에 교회 오는 아이들과 연관된 신앙 훈련하는 것은 주로 교회학교 사역이고 그다음에 아이들의 초, 중, 고등학교 졸업하고 또 대학교도 가고 그러는 이 사회화 과정에서의 교육 학습은 지금 현재 어느 나라나 다 일반적인 공교육 또는 사교육 그게 담당하고 있죠. 근데 교회 중에서 사회화 과정에서 필요한 교육과정을 기독교적인 가치로 교회가 주도해야 된다. 이게 사실은 근본적인 방향입니다.

저도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 그게 목표고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학 입시 위주로 수많은 사교육들 비용이 들고 이거를 우리 기독교가 교회가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 기독교 교회 그 한계에 부딪힌다.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그런 생각 당연히 저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이제 기독교 역사적으로 보면 세계가 사실은 별 하나로 움직인 게 기독교 희망이었습니다. 근대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학교에 다니고 학교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 몇 백 년 안 된 거예요.

중세까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일반 서민들은 학교 교육 전혀 없었고요. 귀족 자제들 나름대로 이런저런 사교육 시스템도 있었고, 그러니까 옛날로 가면 교회에서 일반교육도 사회화 과정의 교육도 담당했구요. 그리고 가정이라는 것은 기독교 교회하고 훨씬 더 가깝게 하나로 짜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훨씬 더 진지하다. 그럴까요? 우리 교회 현재 가정 중에서 교회에서 무슨 프로그램 하든지, 교회에서 무슨 사역 할 때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아이들까지 그냥 열심히 참석하는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교회사역하고 가정, 가문 전체가 깊숙하게 짜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게 옛날로 가면 훨씬 더 일반적이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문화권 자체가 기독교 문화권이었던기 때문입니다. 유럽이라는 데는 그래서 전통적으로 교회 가정 학교 이게 는 하나로 한 덩어리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사로서 가지는 목표는 그것입니다. 신앙, 가정, 학교가 아주 긴밀하게 한 덩어리로 그렇게 인생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면 좋겠다. 아마 이거는 모든 목사들 생각에 대부분 다 비슷할 거예요.

다음 세대위원회 여기에서 대안학교가 개인으로서는 목표입니다. 그런데 다음세대위원회의 활동이 대안학

교 딱 한 가지만 목표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교회 현재 상황에서 우리 교회 교육부가 하는 사역이 어느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느냐는 것에 일차적 목표가 있었던 것입니다. 부모님에 따라서 여기저기, 이런저런 기독교 대안학교 보내시는 부모님도 있고 여러 상황일 텐데 부모님에 따라서 우리에게도 뭔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깊으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뭐 그런 데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고 뭐 그러신 분도 계시고 근데 다음 세대 위원회 활동 6개월을 통해서 그런 관심들을 일깨우고 생각해보게 하고 그것으로 주제를 모으는 것이 제일 기본적인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활동이 집사님은 6개월 짧다. 더 했으면 좋겠다.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한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대안학교가 제대로 추진이 되면 사실은 교회 다른 사역은 이를 기반으로 연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한 것이 뭐냐 하면, 어떤 학교를 하려면 교육 커리큘럼 학사 과정이 이게 핵심입니다. 대학이든 유치원이든 간에 말이죠. 학사 과정 전체 시스템을 세운다는 것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거기는 인생관 가치관이 있어야 되고 교육 철학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전부 다 세운다는 게 결코 간단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미국 쪽에 온라인 학교가 있어요. 거기에는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교육 과정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교육 과정을 나올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다 인정받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고등학교 나왔다. 그러면 미국이 있는 학교 그냥 갈 수 있고 대학 갈 수 있고 유럽에 있는 대학도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학사 커리큘럼에 활용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 여기는 뭐만 있으면 되냐면 티처가 있을 필요가 없고 튜터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으로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온라인으로 쪽 하면 제일 힘들 것 같고, 학사 과정 뭐 그런 거는 이제 그쪽에 오랜 전통을 가진 기독교 철학 하면 되고 그리고 학사 커리큘럼에서 우리가 조금만 보완을 하면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온라인으로 다 공부하니까 여기서는 선생님이 말하자면, 지도만 해주는 것을 튜터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교육에서 필요한 것은 아까 우리 서 집사님도 얘기하셨는데 신앙 교육이 필요한데 그리고 사회와 과정에 교육이 학습도 해야 돼요. 오늘날 교육에서 이미 많이 사라진 문제인데 전인 교육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필요한 게 글로벌한 시야를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글로벌한 역량 글로벌한 퍼스펙티브 글로벌한 어떤 감각을 가지도록 그렇게 반드시 교육해야 하지요

글로벌한 교육으로 예를 들어 미국에서 기독교적으로 잘 돼 그런 학교로 우리가 조인했다. 그러면 이제 학사 커리큘럼 그렇게 하면 됩니다. 신앙 교육은 거기에 기독교적인 권위가 기본적으로 들어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리 교회가 강조하는 말하자면, 동네세메줄 신앙 교육 넣으면 되고 그다음에 전인교육 활동을 여기서 해야 돼요.

아이들하고 같이 서울에 역사 탐방을 한다든지 아이들하고 같이 모여 풋살장에서 운동을 하고, 글로벌한 거는 사실은 그것 때문에 시애틀의 로고스 라이프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내년에는 갈 거예요. 다시 한 달 정도 해 가지고 외국에 글로벌한 네트워킹을 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어렵지도 않고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단계를 밟아야 돼요. 제일 기본적인 단계는 우리 교회 관심사로 아까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같은 또래 부모들이 서로 얘기하고 요청해야 합니다. 그런 게 이제 6개월에 다음세대위원회 또 이런 간담회에서 필요한 거죠.

근데 그런 관심사가 모이고 난 다음에 이것입니다. 서 집사님이 얘기하셨던 코로나 전에 했던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말하자면, 부모들 학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주말 학교를 하는 거예요. 토요일 주일 그러면 내 아이가 공교육 받고 있는데, 하고 안 다니고 여기 뭐 어떤 대안 앞에 꼭 집어넣는다 그거는 쉬운 결정은 아니예요. 그죠 잘못된 건 어떻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토요일 주의 지금 우리 예수 있는 부모들은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토요일 주말 학교를 하면서 부모들이 왜 같은 교회 신자들이고 같은

교회 식구들이지만 근데 학부모로서 우리 교회 학교에서 하는 주말 학교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 그리고 부모들이 기대감을 가질 만큼 퀄리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학교 주일에 오는 거는 목회자들에 따라서 탁월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데, 주말 학교가 대안학교를 목표로 한다면, 그것은 달라야 돼요. 실수하면 안 돼요. 결정적으로 실패하면 그 다음 단계가 진행이 안 돼요. 주말 학교를 하고 그다음에 인제 일부 말하자면, 방과 후 학교 이런 걸 하면서 신뢰 관계가 형성되면 아예 전일제 학교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검정고시는 뭐 아주 쉽습니다. 검정고시는 그건 부부가 아무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아이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일반 교육이 훨씬 많잖아요.

그러면 대안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자기 정체성에서 '나는 대안학교! 우리 학교 좋아! 나는 이거 아주 자랑스러워!' 이 자의식이 형성되는 게 중요합니다. 안 되면 아이들이 주로 일반 공교육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한국에서는 아이들의 심성 형성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자의식을 어떻게 가지도록 요구를 하느냐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우리가 그런 대안학교를 한다고 그러면 1년에 뭐 미국 시애틀에 가고 또 지리산도 한번 같이 가고 제주도 뭐 올레길도 흘러보고 이러면 이제 아이들이 자긍심을 갖겠지요.

이런 과정의 첫 단계는 저는 제일 오래된 독수리학교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이미 여러 학교들과 정보도 알고 있으니까요. 다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담임목사가 될 하려면 장로님들을 설득을 해야 돼요. 그래야 예산이 편성이 되니까. 부교역자들이 여기에 승부를 건다. 이런 사람이 한두 사람은 있어야 돼요. 나는 평생 나는 이 사역한다. 대안학교 사역한다. 이런 사람이 한 두 사람 정도는 적어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학부모님들의 관심이 증폭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교회에서 대안학교를 한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시는 거예요. 참여를 하셔서 가지고. 내가 봉사를 우리 봉사하고 또는 부모님들 중에서 대안학교를 한다.

그러니까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쉬운 얘기로 부모들이 일곱 여덟 가정만 있어도 홈스쿨링도 가능합니다. 만일에 우리 교회 부모들이 한 일곱 여덟 가정에서 홈스쿨링 한다. 그러면 당회에서 논의해 가지고 당연히 이거는 우리 교회가 지원도 해줘야 되고 제 입장에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 교회 아이들 홈스쿨링 하니까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더 거기에 참여해서 얼마든지 돕겠습니다. 더욱이 홈스쿨링이 아니고 대안학교를 한다고 하면 10층 공간 있잖아요. 1층도 곤지뼌뼌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본격적으로 대안학교를 한다면 우리 교회가 공간 다 쓰면 되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처럼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가 교육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 줄 모르겠습니까? 교사 채용, 커리큘럼 등등 저는 그런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할 때 얼마만큼 거기에 에너지가 들어가고 그것도 압니다.

지금 우리 교회학교의 풀타임 워커가 여러 명이예요. 우리가 그 대안학교를 한다면 기존에 교육부는 늘 파트타임 목회자로 했지만, 필요하면 풀타임 해서 더 하면 되죠. 물론 목회자는 교육에 맞는 목회자로 뽑아야 되겠죠.

제 생각에는 앞으로는 교회 집사님들 특별히 우리 신희진, 김예지, 현경집사님과 같은 청년 간사 출신들이 우리 교회를 끌고 가야 돼요.

저로서는 대안학교가 너무나 명백합니다. 목회 은퇴가 5,6년 남았는데 그런데 현재 장로님들 설득할 수 있는 학부모들 자체가 별로 관심이 없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요. 그건 못합니다. 그런데 학부모들이 목

사님은 그거 우리 하시지요. 하면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견은 충분히 가능하니까 대안교육을 저로서는 꼭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2차 간담회에서 제가 여기 나오면 담임 목사의 생각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생각을 했으니까. 우리 교회는 뜻만 모이면 할 수 있습니다.

한현경 집사님

사실 이번 주에 기도를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예를 들어 좋은 집에 방이 있는데, 정리가 아직 안 된 거예요. 근데 저희 남편이 뭐 티비를 사고 싶다. 근데 이 티비를 살 재정이 약간 빠듯하고 이 티비를 놓을 공간을 만들려면 집을 치워야 하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제 코로나 전에 목사님이 대안학교를 얘기하셨을 때 너무 좋았거든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금 얘기를 들었을 때는 우리 교회가 가능할까 생각됩니다. 마음속에 시기상조 아직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만 우리 아이들이 목사님 말씀하시는 길로 갈 수 있고 정말 신앙적으로 아이들이 정말 클 수 있다면 저도 던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주에 그래서 좀 과장되게 말하면 한 7-8명 동료들이랑 좀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제 나름대로 예상 수요 부모들이었던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한두 명 아직까지는 한두 명 다들 던질 생각은 아직 없었던 것 같고, 어떻게 될까? 이거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아까 집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프라나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될지에 대한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되었는지 그래 할 한데 좋아 OK라고 했던 사람은 사실 한 분이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7-8명 정도 중에서 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 사실은 같이 가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주일 학교에 대한 얘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도 있었습니다.

동네세메줄을 붙들고 제 세 아이들과 붙들고 가는 거에 대해서 집중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대안학교로 연계될 가능성을 가지고요.

처음에 예로 들었듯, 지금은 남편이 말하는 티비를 드리기보다 집을 좀 더 정리하고 좀 더 깨끗하게 청소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은지 집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7살 5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김은지 집사입니다. 지금 태아영아 부서에서 교사로 섬기고 있기도 하고, 또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 입장이다. 보니까, 두 가지 위치에서 중립적인 마음들이 되게 부딪치는 것들 많아서 입장 정리가 우선 나부터 되어 있지 않구나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되게 감사했던 것은 내가 다음 세대에 대해서 그만큼 관심이 사실 없었구나, 그만큼 고민을 해보지 못했구나 라는 것들을 좀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사실 대안학교 이야기가 나올 때 제 안에 부담이 좀 있었던 거 같아요. 아직 두 아이들이 미취학이고 이미 대안학교를 보내고 있으신 분들은 대안학교 자체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는데, 저한테는 대안학교에 대한 정의 자체가 사실은 많이 부족했어요. 그냥 신학 교육, 신앙 교육을 하는 학교, 인품을 위해서 보내는 학교, 더 기도하기 위해서 맡기는 학교라고만 느껴졌기 때문에 두 아이 중에 첫째 같은 경우는 내년에 학교에 입학해야 하는 나이인데 과연 보낼 수 있을까? 신앙 교육 너무나도 중요하고 지금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대안학교에 갔을 때 세상으로 나아가는 게 가장 첫 번째 목표일 텐데 어떻게 아이들이 대안학교에서 자라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거룩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 연계점은 무엇일까? 저한테 묻고 답할 수 있는 그런 교재의 소통의 장이 없었거든요.

부모가 되면서 계속 고민들이 드는 건 신앙관이 세워져야 되고 이런 부분조차 저에게 아직 확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맡겨야 할지 또 아이들에 대한 인생을 선택한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부모 교육이 저는 되게 중요하지 않나 라는 동기부여뿐만이 아니라 왜 이

게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스텝 바이 스텝이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부모 학교 주말 학교 그리고 방과 후 학교 그리고 대안학교로 연결되는 스텝의 과정들을 들으니 생각이 바뀌는 것 같아요. 전에는 몰랐기 때문에 좀 겁이 났던 것 같아요. 나는 아직 출발 현장에 서지도 않았는데 바로 목적지로 달려오라고 하는 느낌 많았는데 스텝이 있었구나라고 하면서 조금은 시간이 바뀌게 되는 조금은 마음이 열려지게 되는 이 자리가 아니었나 싶어서 용기를 내 보았습니다.

김예지 집사님

저는 사실 오늘 간담회에 참여한 목적은 1차 때는 참여를 못 해서 주로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지를 한번 듣고 싶었고 근데 지금 대안학교에 대해서 많이 또 관심을 갖고 계신 거 같고, 또 말씀을 하시는 자리 같습니다. 첫 아이를 작년에 학교에 보낼 때 대안학교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하기는 했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공교육에 이렇게 발을 딛기 시작했고, 그리고 사실 지금도 내가 대안학교를 보내고 싶다. 아니면 나는 공교육을 그냥 끝까지 보내야지라는 이 제안의 기준이 정확하지가 않은 상태여서 오늘 간담회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안학교에 대한 방향들에 좋다고 생각은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만 된다면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구체적인 헌신과 부모들의 참여가 필요한데 그것을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 겁이 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우선은 교회의 상황적으로나 교회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30~40대가 해야 할 몫이 크고 또 이 교회에 미래를 짊어지고 가야 할 너무 부담스러운 이야기지만 저희 30~40대가 해야 되는 곳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부모들을 뭔가 교회와 신앙에 열정을 끌어올릴 수 있는 무언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너무 절실하게 많이 느껴지고요. 대안학교는 이후에 생각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희진 집사님

저는 2004년 11월에 목사님이랑 똑같이 교회 오게 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고 있는 신희진 집사입니다. 저는 목사님이 이 교회 오셔서 보시니부터 시작해서 동네세메줄까지 그리고 중간 중간 다음세대에 대한 비전들을 계속 공유해 주셨던 세대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서 계실 시간이 있으셨던 시간보다 조금이구나 라는 부분에 아쉬움과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랬을 때 지금 말씀하시는 이 모든 사역들이 담임 목사님의 사역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사역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으로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 먼저 접근하고 싶었습니다. 대안학교가 정말 좋은 대안이 된다고 하면, 교회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계시는 동안 다 이루지 못할 거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어질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 제가 처음 대안학교 이렇게 저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가 4살, 6살 때 처음으로 개인적으로 독수리 학교 설명회를 갔었어요.

그리고 저희 코로나 전에 독수리학교 교장 선생님 오셔서 그래서 엄청 반가웠고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에 뭔가 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에서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3학년 5학년이 고요.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다닐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이제 그때보다 크지 않습니다.

나머지 아직 중, 고등학교 교육제도 안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대안학교가 교회 전체적인 저희의 방향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시작은 부족하지만 해야 되는 때가 저희 때 시작돼야 되겠다는 마음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금 계속 그런 수요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단계별 내용과 지금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부분들의 데이터가 쌓이는 건데 그 데이터를 쌓을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현실적인 방안에서 그게 돼야 된다. 그래서 뭐 온라인 폼이나 설문조사나 이런 간담회로는 그런 것들을 다 조사할 수 없고요. 그리고 그 그런 모든 자료들을 여기서 다 이렇게 같이 공유하고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제안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또 이렇게 저희가 공유가 되고 그럴 수 있는 카테고리랑 콘텐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간담회 때마다 지금 공통적으로 계속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저희 제가 그냥 여담으로는 바울이 지금 시대에 다시 돌아온다면 온라인전도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온라인 사역 그리고 온라인 교육 제도에 선점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기반이 저희 교회 안에 있었으면 좋겠고 지금은 작지만 그런 폼들로 인해서 설문조사지 이런 것들을 지면으로 하는 것보다 요즘에 아주 구글이 좋은 일을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구글 시트를 사용하면 한 사람의 인력이 다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정도로 데이터를 다 분석해 주고 그런 것들 정리해 주고 하기 때문에 그런 틀로 데이터를 쌓으면서 그때그때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남일 장로님

우리 학부모들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이 좀 대안학교를 만약에 교회에서 만든다. 그러면은 지금 생각은 아주 저학년들, 초등학생을 상대로 먼저 생각하고 있는데, 충족시키려면 곧 중, 고등학교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대단히 커지는 거죠. 대안학교를 우리 담임 목사님은 오래전부터 생각을 하고 계셔서 이 교회에서 현실화 되려면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이제 담임 목사님은 아까 우리 자매님이 얘기하셨지만, 지금 일을 만약에 벌여 놓으시면 벌려놓으시면 임기까지 잘 끝나가실 것 입니다. 재정적으로 많은 투자가 필요할 뿐입니다.

담임 목사님

우리 교회 예를 들면, 출산 장려금 이거는 아마 현재 재정보다 더 초과로 지출이 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든. 현실적으로 시행하려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지출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비전 또 방향성에 필요하다면 하면 되는 거죠. 근데 할 때에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맞는지 점검하면 됩니다. 예산은 배정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근데 예산이 무제한으로 있는 건 아니니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거죠. 아무튼 긴 시간 딱 세 시간 했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고 이런 만남이 필요 하다 하면 담임 목사로 얼마든지 시간 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4차 세미나를 마치고 [팀원 FEEDBACK]

이현준 : 간담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떠셨나요?

이택수 : 저희보다야 3시간이 되는 시간을 이끄신 담임 목사님과 참여한 학부모님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긴 시간 잘 참여해 주신 듯합니다.

임규현 : 맞아요. 지난 번 보다 긴 시간으로 느껴집니다. 이렇게 길어질 것 같았으면 간식이라도 제대로 준비를 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현준 : 여름 일정들 마치고, 급하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물과 사탕만을 준비된 점이 아쉽긴 합니다.

손현례 : 오늘은 여러 의견을 나눈다기보다는 대안학교라는 하나의 주제에 집중이 된 것 같습니다.

이현준 : 다소 그런 부분이 있는 듯도 여겨지는 듯 보여도, 초반에 목사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해도 된다고 하셨지요.

손현례 : 앞으로 신앙 교육과 믿음의 자녀로 키워 내는 일에 있어서 결국엔 교회가 교육에도 힘을 써야 한다고는 생각합니다. 다만, 그 일이 큰일이기에 사전에 준비가 많이 되고, 부모님들에게도 설득의 시간이 필요하지요.

지선화 : 신앙적인 대안학교라면 우선 전문가들과의 실질적이 간담회를 하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궁극적으로 다음세대 아이들이 하나님을 분명하게 만나고 말씀 잘 배워서 그 안에 믿음이 자라고 나중에 교회의 든든한 미래가 되어 주길 바라는 마음이니깐요.

한은실 : 대안학교이든, 주일학교이든 우리 다음세대 아이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경험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현준 : 그렇죠.

손현례 : 이야기를 들어보니 다른 의견은 없고, 대부분이 대안학교 관련 이야기였던 것 같군요. 대안학교에 재정이 많이 투입이 되어야 하는 부분은 분명합니다. 분명한 커리큘럼도 있어야 하고요.

정은숙 : 그럼요. 아이들의 교육이잖아요. 공간들도 잘 꾸며야 합니다. 시간도 길었는데 다음번에는 중간의 쉬는 시간이라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손현례 : 장소도 10층보다는 아래층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선화 : 그리고 간담회에 주제를 분명히 하여 학부모님들께 안내를 하면 좋을 것도 같습니다.

강성목 : 홍보도 더 해서 더 많은 부모님들이 참여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진행자가 있어서 사회를 보듯 하면 좀 더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